



자재 가격 '동상이몽'

김현회 /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구로사와 아키라'라고 하는 일본 영화감독이 있다.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 라쇼몬(羅生門)이라는 작품이 있다. 1951년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그랑프리, 미국의 아카데미상 특별상을 받은 수작이다. 덩불 속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 영화의 배경이다. 도둑이 아름다운 여자를 범하고 그 남편인 무사를 죽인다. 도둑·여자·무당·목격자인 나무꾼 등 네 사람이 같은 사건을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증언하는 것을 영상으로 묘사했다. 결국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지만 네 개의 증언 중 어느 하나만을 보면 그것이 진실처럼 보인다.

국제 원자재 값 하락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보는 자재 제조사와 구매사간의 시각을 보며 라쇼몬이 떠오르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영화에서는 진실을 밝히지 못했지만 원자재값 하락에 맞춰 국내 건설자재 값을 내리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곧 밝혀질 것이다. 국제 유가는 한마디로 반 토막 났다.

뉴욕상품거래소 서부텍사스원유의 경우 지난 7월 11일 배럴당 147.2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60달러 선을 지키기도 힘겨워 보인다. 격세

지감을 느끼게 한다. 결국 OPEC도 감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구리도 2005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파운드(453g)당 2달러 밑으로 까지 내려갔다.

세계 경기의 둔화가 최대 구리 수요처인 중국까지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현금, 특히 달러화가 가치를 높이는 한 현물의 가치는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위기가 오래 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보다 현금 유동성에 더 우선순위를 두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금융 위기 초에 안전 자산으로 각광 받던 원자재, 심지어 금까지도 신용경색 앞에서는 힘을 잃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국제 원자재 값은 떨어지고 국내 석유 값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철강재를 비롯한 국내 건설 자재 값은 말만 무성하다.

우리 설비건설 회원사들을 비롯한 자재 구매사들은 오매불망 가격 인하를 바라며 내리지 않는 제조사들을 성토했고 있다. 올릴 때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로 대더니 지금은 판소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버전의 스토리는 전혀 다르다. 우

국제 원자재 값은 떨어지고 국내 석유 값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철강재를 비롯한 국내 건설 자재 값은 말만 무성하다. 우리 설비건설 회원사들을 비롯한 자재 구매사들은 오매불망 가격 인하를 바라며 내리지 않는 제조사들을 성토했고 있다. 올릴 때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로 대더니 지금은 판소리라는 것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바로 국내 건설 자재 가격에 반영 되지 않는 데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국제 원자재 가격은 근본적으로 투기 세력이 기저에 있기 때문에 경기나 현금 유동성 등에 쉽게 영향을 받지만 국내 철강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격을 묶어 둘 수 있다는 것이다. 한번 내린 가격을 올리려면 저항이 따른다. 반면에 물량 조절을 통하여 가격 인하 요인을 없애면 수요가 늘었을 때 가격 인상 눈치 없이 물량만 늘리면 된다.

예상대로라면 국내 철강재 값이 내리려면 좀 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제조사 관계자의 말대로 세계의 모든 회사들이 내린 후에야 검토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선 원자재 가격이 30% 이상 하락하였지만 달러당 1,400 원대를 오르내리는 환율, 즉 원화 가치 절하가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를 상쇄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 철강 제품은 세계적으로 가장 가격이 낮기 때문에 외국 철강사들이 인하를 해도 아직 가격이 싸다는 것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결국 국제 원자재 가격 인하에 따른 가격 조정 이유는 없는 것이다. 단, 유일한 가격 인하 요인이라면 수요 하락이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철강재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철강 업체들은 가격 인하보다는 생산량 줄이기로 대응할 태세다.

가격 인하를 하더라도 어차피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니 차라리 감산 쪽이 시장 원리에 맞다는 이야기다. 이 정도면 영화 '라쇼몽'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상황을 두고 입장 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바로 국내 건설 자재 가격에 반영 되지 않는 데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국제 원자재 가격은 근본적으로 투기 세력이 기저에 있기 때문에 경기나 현금 유동성 등에 쉽게 영향을 받지만 국내 철강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격을 묶어 둘 수 있다는 것

이다. 또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인하보다는 감산 쪽을 택한다는 것이다. 철강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을 내리든 감산을 하던 회사에 들어오는 이익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번 내린 가격을 올리려면 저항이 따른다. 반면에 물량 조절을 통하여 가격 인하 요인을 없애면 수요가 늘었을 때 가격 인상 눈치 없이 물량만 늘리면 된다.

예상대로라면 국내 철강재 값이 내리려면 좀 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제조사 관계자의 말대로 세계의 모든 회사들이 내린 후에야 검토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프로필

- 現 원켄네트웍스(구 설비넷) 사업총괄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91년)
- 삼성그룹 공채 입사(91년, 삼성화재 발령)
- 홍보실 근무(사보, 사장단 연설문 작성, 사내방송PD, 언론·인터넷 담당 등)
-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sion(뉴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정 수료
-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PDA영업, 리플렛 기획 등)
- 인터넷사업팀 근무(삼성화재 전국애니카서비스망 구축, 전사 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